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모노레일' 전환 검토

저심도 방식 푸른길 보존 어렵고
지하 매설물로 추가 비용 부담
대구는 모노레일 개통 후 '대박'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법 비교

종류	경량전철 (저심도)	지상고가 (모노레일)
속도	4~9m 지하공간 운행	도로 전용고가 위 운행
속도	30~40km/h	30~40km/h
장점	지하선로 이용, 도로 교통과 충돌없음 무인자동화시스템 적용 가능	스카이 경관 등 관광 자원화 무인 자동화시스템 적용 가능
단점	별도 지하시설물 처리대책 필요	차로 점유로 노면교통 장애 우려
비용	약 500~600억원 (km 당)	약 450~500억원 (km 당)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기존 지하 채굴형 저심도(低深度)에서 지상 고가형 '모노레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개통 후 대박을 터트린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도시인 대구시의 '모노레일'이 롤모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푸른길 훼손 등을 묻는 질문에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구(모노레일)도 방문할 계획"이라며 "푸른길 구간을 비롯한 전동차도 철륵(쇠바퀴)으로 할지, 고무바퀴로 할지 등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9월까지의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저심도의 경우 예상치 못한 매설물 등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 푸른길 훼손을 피하기 위한 우회 구간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시의 재정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추가 예산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민선 5기 때 애초 저렴한 고가 방식(민선 4기)으로 확정됐던 2호선 건설 계획을 추가 예산증액도 없이 저심도 방식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 방식상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부실 공사 및 사업비 미확보 등에 따른 공사중단 및 지연 우려를 시사한다.

시는 또 푸른길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 승인인 남광주역을 기존 1호선 보다 더 깊게 건설해야 하는 데다, 광주 도심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관 등이 가로막고 있어 최소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나머지 구간도 도심 지하공사의 특성상 통상 케이브나 상·하수관 등 각종 지장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시는 서방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지하매설물이 이 전 예산(21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 자체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성공 모델인 대구 모노레일을 눈여겨 보고 있다. '스카이 레일', '달리는 전차' 등으로 불리는 대구 모노레일은 지난 4월 개통 후 2주만에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0일만에 660여만명을 기록하는 등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조만간 시의 원 등과 함께 대구의 모노레일 운영 시스템 등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 염포~여수 돌산 적조경보

장흥 노력도~고흥 염포 해역의 적조주의보에 이어 고흥 염포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내리친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강화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9시를 기해 고흥 염포~여수 돌산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대체됨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제작업 중이다. 도는 연휴기간인 15일 광복절에도 방제선 51척과 바지선 7척, 예찰선 8척, 어선 560척, 어업인 760명,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305명 등 연인원 1065명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지난 13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최영훈 작가 등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 ... 화가인 나도 부럽네요"

22일까지 광주학생문화회관

올해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6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가 지난 13일 오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막했다.

<관련기사 16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10년간 미술·작문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8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가족여행', '내가 꿈꾸는 세상', '자연이 주는 선물', '꽃피는 우리 동네', '하늘에서 소금이 내린다면' 등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다. 또 호남예술제 출신이거나 심사위원

을 맞는 등 호남예술제와 인연을 맺어 온 최영훈 전 광주시립미술관장, 조윤성 조선대 교수, 한희원·강남구 작가, 정보식 건축사의 작품 10점도 함께 전시됐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광주일보사 김여송 사장을 비롯, 광주시 교육청 김성영 교육국장, 최영훈씨 등 초대 작가들이 참여,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김여송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호남예술제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술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과정을 함께 해왔다"며 "이번 전시회로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100주년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220-05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전면파업...벼랑 끝 질주

사측, 임금피크제 도입 전제 일시금 지급 양보 최종안 제시

노조, 조건 없는 일시금 요구 ... 오늘부터 파업 강행기로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의 올해 단체 교섭이 노조의 전면파업 강행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금호타이어 회사 측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파업을 막기 위해 기존안 대비 대폭 상향된 수준의 '최종안'을 노조측에 제시하고 파업 유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회사측 최종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고 11일부터 14일

까지 예정된 부분파업을 강행했으며 17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노조측의 '일시금 지급'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의 양보안'을 지난 10일 노조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건 없는 일시금을 요구하며 회사의 제시안을 거부했다. 회사는 지난 2014

년은 워크아웃 기간이었으며 이 기간 중에는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 지급요건에 미달, 지급할 수 없다며 2015년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경영실적을 확인한 뒤 그 수준을 결정하자고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 회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부분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총 8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17일부터 전면파업이 시작되면 매일 약 52억원의 추가적인 매출손실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측의 대폭 상향된 수준의 최종안 제시에도 노조측은 양보 없이 전면파업까지 강행하며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무책임한 파업으로 인해 회사는 워크아웃 기간 어렵게 회복한 경쟁력과 시장을 다시 잃을 수 있는 만큼 노조는 파업이 물고 울 약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 관련기사 20-22면

연제동 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이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소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백만원 선착순(동·호 지정)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좋은 중소형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 즉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동·호 지정
-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 첨단 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 상무지구 10분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
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